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1991. 5. 22

崔 春 欽(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姜 元 植(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1. 中·蘇 頂上會談 結果	3
2. 評價 및 展望	4
가. 中·蘇의 對美 牽制 도모	4
나. 中·蘇 양국관계의 새로운 協力時代 개막	5
다. 中·蘇 軍事協力 강화와 日本의 軍事大國化 牽制.....	7
라. 中·蘇 西部國境問題 해결노력 촉진	8
마. 蘇聯의 亞·太 軍縮 이니셔티브 본격화 가능성 증대.....	9
바. 中·蘇 經濟協力 본격화	10
〈부록〉 中·蘇 共同聲明의 주요내용	11

빈 면

1. 中·蘇 頂上會談 결과

가. 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1991. 5. 15~19 蘇聯을 공식방문,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2차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함. 한편 江澤民 총서기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재차 訪中을 요청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함.

나. 5. 19 발표된 양국간 공동관심사 및 세계정세에 관한 18개항의 共同聲明은 反霸權·內政不干涉 강조로 특징지어지는 바, 中·蘇 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시에 국제정치상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霸權主義에도 반대한다는 사실을 강조함 (공동성명 내용은 附錄 참조).

- 韓半島問題와 관련, 한국의 유엔가입 및 북한의 핵사찰 등 한반도의 최근 현안문제에 관한 공식 발표는 없었으며, 양국 共同聲明은 한반도정세의 긴장완화가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긴요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현을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함.

다. 양국 정상회담 이외에도 錢其琛 외교부장과 베스메르트니흐 외무장관은 5. 16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東部國境線 劃定協定을 체결함. 한편 秦基偉 국방부장은 야조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Su-27 전투기 도입, 군부교류 확대, 군사기술면에서의 협력강화문제 등 양국간 軍事懸案을 논의함. 이와 함께 李嵐清·카츠세프 대외경제장관회담, 朱良·파린 黨국제부장회담이 각각 진행되었음.

2. 評價 및 展望

가. 中·蘇의 對美 牽制 도모

- (1) 中·蘇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國際政治上의 어떠한 霸權主義에도 반대”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內政不干涉 원칙을 강조한 것은 냉전종식 및 걸프전 이후의 美國 獨走를 견제하려는 中·蘇 양국의 共同認識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中國은 美·蘇 新데탕트에 따른 脫冷戰趨勢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정세의 근본적 변화는 없으며 국제정치상의 霸權主義와 強權主義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는 바, 걸프戰에서 美國의 일방적 승리로 中國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됨.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反霸權을 강조하는 中國의 입장을 蘇聯이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美·中 관계는 천안문사건 이래로 계속 침체상태에 있는 바, 특히 美國은 최근 중국을 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 급증하고 있는 對中國 貿易赤字(89년 62억 달러, 90년 104억 달러, 91년 150억 달러 적자 예상)에 대한 보복조치를 선언한 바 있으며, 오는 6.3 시한의 貿易最惠國(MFN)待遇 延長問題를 정치범 석방 등 中國의人權問題와 결부시키고 있음.
 - 한편 蘇聯은 89년 동구혁명과 소련의 본질적 변화로 소련의 國際政治的 位相이 약화되고 걸프전 이후 美國이 유일한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자, 美國을 견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함.
- (2) 그러나 이번 中·蘇 정상회담에서 표명된 對美 牽制가 구체적인 實效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中·蘇는 공히 국내경제난에 직면하고 있어 對美關係를 기본적으로 건실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89. 6 天安門事件 이래 계속되고 있는 美國을 위시한 西方의 경제적 압박은 中國 改革指導部の 국내정치적 기반 약화로 직결되는 바, 中國은 미국의 대중국 지원을 계속 유도·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소련의 경우에도, 經濟危機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의 對蘇 협조가 요구됨.
 - 최근 美·中·蘇 삼각관계는 非零化的(non zero sum game)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바, 中·蘇 관계발전이 中·蘇의 對美 영향력 행사로 연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中·蘇의 對美 牽制는 우선 상징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蘇 兩國은 향후 美國이 걸프戰 이후 제고된 국제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全世界 및 東北亞에서 美國의 主導와 意思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共同步調를 취하는 등 對美 牽制를 계속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나. 中·蘇 양국관계의 새로운 協力時代 개막

- (1) 中·蘇 양국은 이번 頂上會談을 통하여 1989. 5 양국관계 정상화 이후 2년간의 교류와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전분야에 걸친 새로운 協力時代를 개막함.
- (2) 中·蘇 양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양국간의 우호관계 발전이 兩國의 國益에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蘇聯은 중국과의 관계발전이 소련의 아시아정책 추진과 극동개발에 긴요함을 인식, 對中 관계정상화를 적극 모색하여 왔음.

- 中國은 그동안 사회주의권 격변의 책임을 들어 고르바초프를 비난하여 왔으나, 최근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 안정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인식하게 됨. 즉 연방해체 요구 및 경제난 등 최근 소련의 위기상황이 중국에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분리주의적 공화국의 脫蘇 독립요구에 따른 소연방의 붕괴는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 原理主義의 급격한 고양을 야기시킬 것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 티벳과 新疆 등 중국의 민족문제를 자극하게 될 것임.

(3)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江澤民 총서기는 “소련도 사회주의하에서 안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피력하는 등 中·蘇 양국은 사회주의 협력관계 발전을 강조함. 이는 中·蘇 양국이 그동안 西方과의 관계발전에 주력한 나머지 社會主義的 連帶를 소홀히 하여 왔다는 인식에 입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 향후 中·蘇 양국은 對西方 經濟 協力을 계속 모색하는 동시에 社會主義的 連帶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4) 그러나 中·蘇 양국관계가 50년대의 同盟關係로 복귀되지는 않을 것임.

- 1989. 5 共同聲明에서도 양국관계 발전이 제3국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동맹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되었으며, 이는 이번 頂上會談에서도 재천명되었음.
- 따라서 中·蘇 간의 새로운 관계발전은 競爭的 共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의 同伴者關係 構築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 中·蘇 軍事協力 강화와 日本의 軍事大國化 牽制

- (1) 中·蘇 양국간 군사협력은 90. 5. 31 劉華清 중국공산당중앙 군사위 부주임의 訪蘇 이래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5월초 야 조프 국방상의 訪中을 통하여 Su-27機 24臺의 對中 인도 등 7억 달러 상당의 軍事協力を 약속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함.
- (2) 中·蘇 軍事協力 강화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中國은 지금까지 F8II 전투기의 공동개발 등 美國의 협조 하에 軍現代化를 모색하여 왔으나, 89. 6 천안문사건 이후 美國은 전투기 공동개발을 중지함. 美國은 우호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무기구입 외화 부족, 소련의 위협 약화에 따른 對中 특별조치 필요성 약화 등의 요인으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군사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음.
 - 天安門事件 이후 中國은 美國이 「和平演變」을 노리고 있으며, 만일 對中 무기·기술이전을 시작한다고 해도 언제 다시 중지할지도 모른다는 불신감을 갖고 있음.
 - 50년대 이래로 中國의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蘇聯式인 바, 中國은 소련제 무기와 군사기술을 통하여 軍現代化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가짐.
 - 한편 蘇聯은 군사장비 및 기술의 對中 수출을 통하여 중국과의 우호관계 긴밀화를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외화가득 등 소련경제에도 부분적으로는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3) 또한 中·蘇 군사협력 강화는 증대되고 있는 日本의 軍事大國化 가능성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中·蘇 양국의 위기의식에 기인하고 있음.

- 소련 위협의 감소로 인해 야기될 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 및 일본의 걸프전 파병조치는 日本 軍國主義 부활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中·蘇는 이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함.

라. 中·蘇 西部國境問題 해결노력 촉진

- (1) 이번 체결된 中·蘇 양국간 東部國境線 劃定協定은 1969년 국경교섭 개시 이래 최초의 협정 체결로서 中·蘇 관계긴밀화를 상징함.
 - 일반적으로 國境劃定은 국제법상 탈베그(Thalweg)원칙에 따라 선박통항이 가능한 水路인 경우 河川 最低床의 중앙선으로 하고, 산악지대의 경우 산맥의 능선으로 하며, 항해가 불가능한 하천의 경우에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1989. 8 中·蘇 국경회담에서 탈베그 원칙 수용이 합의된 이래에도 中·蘇 양국은 우수리江과 黑龍江上的의 약 600여개의 川中島의 존재에 따른 탈베그원칙의 적용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회담에 난항을 거듭하여 왔음.
- (2) 蘇聯은 탈베그 원칙 적용에 있어서 대폭 양보하여 主要 航行路의 중심선보다 중국측에 치우쳐져 있던 東部國境을 주요 항행로를 중심으로 확정하기로 중국과 합의함으로써 20여년간의 國境紛爭을 기본적으로 마무리함.
 - 이에 따라 60년대 國境紛爭地域이던 珍寶島(다만스키島)는 中國領으로 귀속됨.
 - 한편 주요 항행로의 남부에 속해 있으나 소련이 실질적으로 영유하여 온 하바롭스크 인접 우수리강과 흑룡강의 합류지점인 전략적 요충지 黑瞎子島(대우수리스크島)에 대한 교섭은 계속하기로 함.

- (3) 東部國境의 대체적인 확정에 따라 中·蘇 양국은 향후 新疆 등 西部國境 확정에 박차를 가할 것임.
- 그러나 하천이 주요 국경으로 되어 있는 동부지역과 달리 西部國境의 경우에는 기준으로 삼을 지형이 없기 때문에 國境劃定 交渉은 동부지역 보다 일층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마. 蘇聯의 아·태 軍縮 이니셔티브 본격화 가능성 증대

- (1) 中·蘇 국경지대에서의 병력삭감 합의로 中·蘇 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소될 것인 바, 蘇聯은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軍備統制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음.
- 蘇聯은 종래 아시아에서 美國과 中國을 겨냥하여 군사력을 배치하여 왔는 바, 蘇聯이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적 조절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中·蘇 국경지대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軍縮을 선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음.
 - 이에 따라 蘇聯은 블라디보스톡 선언 이래 아·태 적극진출 정책의 일환으로서 中·蘇 국경지대에서의 軍縮을 제의하여 왔으나, 중국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이번 中·蘇 정상회담을 통하여 蘇聯이 동부국경 획정과 관련하여 대폭 양보함으로써 中·蘇 국경지대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蘇聯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아·태지역에서의 軍事的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됨.
- (2) 또한 日本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中·蘇 양국의 우려는 근본적으로 日本 政治의 軍國主義化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나,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견제할 수 있는 集團安

保體制 未備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中·蘇 양국의 군사협력을 주축으로 아시아 集團安保 創出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바. 中·蘇 經濟協力 본격화

- (1) 이번 江澤民 총서기의 訪蘇로 이루어진 中·蘇 양국관계의 발전은 양국간 經濟協력을 본격화시킬 것임.
 - 현재 양국간 무역은 89년 현재 36억 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으나, 지난 3월 마슬류코프 부수상은 田紀雲 부수상과 10억 스위스프랑(733 백만달러)의 對蘇 상품차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瀋陽 주재 소련영사관 개설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中·蘇 국경무역을 촉진시킬 하바롭스크 주재 중국영사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經濟交流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2) 한편 中·蘇 양국간 경제교류의 본격화는 동부국경선 확정에 따른 양국 국경무역 등 국경지역 간의 협력 증대와 함께 시베리아開發 및 東北經濟區 開發에 대한 양국간 협조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임.
 - 蘇聯은 중국의 값싼 소비재 수입과 시베리아 개발에의 중국 노동자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中國은 소련으로부터 과학기술이전 및 對蘇 노동력 수출을 도모하고 있음.
 - 양국간 國境貿易은 현재 약 7억 루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양국간 동부국경지대의 군사대결구조의 완화와 함께 국경무역이 급속도로 증대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中·蘇 양국간의 경제교류 증대는 極東시베리아經濟區와 中國 東北經濟區의 연계발전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큼.

〈附錄〉中·蘇 共同聲明의 주요내용

- 향후 兩國 共產黨은 獨立自主, 完全平等, 相互尊重 및 內政不干涉의 原則에 입각하여 계속 협력함.
- 硬貨를 토대로 한 相互交易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모든 형태의 交易을 전면 지원함.
- 國境問題에 관한 協商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고 협상 결과를 條約과 法律의 형태로 확정지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중국측은 中華人民共和國 政府 만이 中國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이며 臺灣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영토의 한 부분임을 재강조하며, 소련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함.
- 새로운 사회제도로서의 社會主義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모순에 부딪치는 것을 피할 수 없음. 兩國은 사회주의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改革이 필요하며 國家와 社會의 安定이 개혁의 중요한 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또한 改革에는 통일된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국내 문제를 처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中·蘇 양국은 霸權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시에 國際政治上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霸權主義도 반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함.
- 인접국가들과의 선린관계 및 협력의 다원화 그리고 모든 아·태지역 국가들은 물론 전반적인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태지역의 安定 및 安保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함. 양국은 아·태지역을 「開放·協力·繁榮」의 地域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태세가 되어 있음.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캄보디아사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당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 韓半島 情勢의 긴장완화가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함. 최근 韓半島에서 이루어진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하며 對話와 協議를 통한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지원할 것을 재확인함. 南北韓이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對話를 계속할 것을 희망하는 한편, 南北韓에 대해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的 統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함.
- 걸프문제는 주로 지역국가들과 인민들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 양국은 美·蘇間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의 체결이 세계안정의 공고화를 위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核武器 완전폐기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로운 생활조건을 창출하고 모든 국가들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한 유엔의 役割 강화를 옹호함.
- 세계인민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공동희망에 따라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한 國際政治·經濟上의 새로운 秩序 創出을 지지함.
- 이번 회담을 계기로 兩國 및 兩國共產黨間의 관계와 兩國 國民間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새로운 章을 열었다는 점에 만족감을 표시함.